

## 2026년 수정 경제전망

미래 전략 개발부 경제조사팀  
강명구, 이은영, 류용욱, 윤영교, 이건무

### I. 세계경제 전망

### II. 국내경제 전망

### III. 금리·환율 전망

2026년 전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며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부각시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소비 및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다만 AI 관련 투자 증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 하락폭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포커스가 물가에서 성장으로 이동하며 금리인하 전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수이다.

2026년 국내경제는 미국-이란 전쟁 등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역대급 수출 실적에 힘입어 전년(1.0%)보다 대폭 상승한 2.5% 성장이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전쟁 영향으로 잠시 위축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전년도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주 개선 영향으로 점차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유가 지속으로 2.6% 수준으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2%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높은 유가 수준과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2026년 국내 기준금리는 양호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상이 예상되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리스크의 점진적 완화와 양호한 달러 수급 여건에 힘입어 1,400원 대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 I. 세계경제 전망

## 1. 개괄

### □ 미국과 미국 외 경제권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며 세계경제 성장 경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 미국 외 주요 경제권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

- 미국 외 경제권의 경우 미국의 관세정책에 의한 교역량 감소 우려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중동·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며 성장 동력 약화

· 유로존 GDP Gap<sup>1)</sup>(%):  $\Delta 1.6$ (‘21년)  $\rightarrow 0.7$ (‘22년)  $\rightarrow 0.1$ (‘23년)  $\rightarrow \Delta 0.2$ (‘24년)  $\rightarrow \Delta 0.4$ (‘25년)

· 일본 GDP Gap(%):  $\Delta 1.6$ (‘21년)  $\rightarrow \Delta 0.9$ (‘22년)  $\rightarrow 0.3$ (‘23년)  $\rightarrow 0.1$ (‘24년)  $\rightarrow \Delta 0.2$ (‘25년)

- 반면 미국은 AI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

· 미국 정보처리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 qoq)

: 35.3(‘25.1Q)  $\rightarrow 20.1$ (2Q)  $\rightarrow 5.7$ (3Q)  $\rightarrow 17.5$ (4Q)  $\rightarrow 31.4$ (‘26.1Q)

· 미국 GDP Gap(%): 0.3(‘21년)  $\rightarrow 0.3$ (‘22년)  $\rightarrow 0.7$ (‘23년)  $\rightarrow 1.0$ (‘24년)  $\rightarrow 0.5$ (‘25년)

○ 글로벌 주식시장의 국가 및 부문 간 격차가 심화되고 주요국 시장금리의 변동성도 확대

- 미국을 비롯한 IT 중심국의 주가지수가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AI 대기업으로의 투자자금 쏠림 현상이 강화

· MSCI미국지수/MSCI글로벌지수 비율(ratio, 연말)

: 5.70(‘20년)  $\rightarrow 6.02$ (‘21년)  $\rightarrow 6.09$ (‘22년)  $\rightarrow 6.28$ (‘23년)  $\rightarrow 6.69$ (‘24년)  $\rightarrow 6.49$ (‘25년)

· 미국 주식시장 내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집중도<sup>2)</sup>

: 10.7(‘23.1월)  $\rightarrow 14.9$ (‘24.1월)  $\rightarrow 15.1$ (‘25.1월)  $\rightarrow 14.2$ (‘26.4월)

· 한국 주식시장 내 대형 반도체기업 집중도<sup>3)</sup>

: 32.4(‘23.1월)  $\rightarrow 26.2$ (‘24.1월)  $\rightarrow 22.2$ (‘25.1월)  $\rightarrow 40.8$ (‘26.4월)

1) GDP Gap = (실제GDP - 잠재GDP) / 잠재GDP. 0보다 작으면 한 국가의 경제가 적정한 수준의 성장(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2) Amazon, Microsoft, Alphabet, Meta가 S&P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KOSPI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엇갈림<sup>4)</sup>에 따라 금리 방향의 동조성이 약화되며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
-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주가지수 상승은 주식시장 고평가 논란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 주요국 기준금리 2010~2019년 평균 vs. 2020년 이후 평균
    - : 미국(0.74 vs. 2.98), 유로존(0.39 vs. 1.84), 한국(2.06 vs. 2.17)
  - MSCI전세계지수 주가/당기순이익 비율(PER, ratio)
    - : 16.9('23.1월) → 19.8('24.1월) → 21.7('25.1월) → 19.9('26.4월)

#### □ 미국의 일방적 대외정책이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非 IT 분야의 투자 부진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이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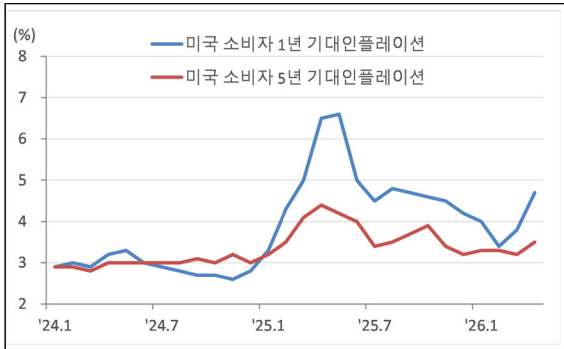
-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은 글로벌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그린란드 편입 추진, 對 이란 전쟁 수행 등이 글로벌 물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2026년 들어 2022년과 유사한 공급망병목 재현 가능성 제기
    -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p):  $\Delta 0.16$ ('25.11월) → 0.54(12월) → 0.42('26.1월) → 0.49(2월)
    - BDI지수(p): 1,877('26.1월) → 2,124(2월) → 2,187(3월) → 2,030(4월)
  - 이란 공습을 계기로 급등한 원유 가격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후에도 전쟁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WTI가격(달러/배럴): 57.3('26.1월) → 61.6(2월) → 71.1(3월) → 101.9(4월)
- 2025년에 비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기본적인 통상정책 방향은 유지되며 지속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개별 국가 간 협상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하락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전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
    - 미국 실효 관세율(%): 19.7('25.10월) → 17.4(12월) → 16.9('26.2월) → 13.4(3월)
  - 사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관세정책을 유지할 것을 예고<sup>5)</sup>

4) 미국은 차기 연준 의장이 비전통적인 수단을 활용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

5)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기존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동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 착수. 무역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26.5.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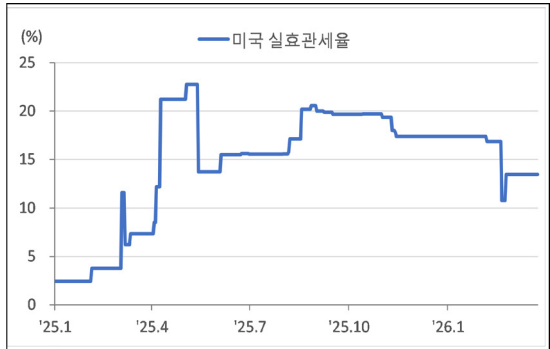
-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전통 제조업 투자 부진과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교역 성장 둔화 우려도 전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전세계 서비스 교역량(% of GDP)
    - : 7.17('22년) → 7.45('23년) → 7.84('24년) → 7.95('25년) → 7.95('26년 E)
  - 지정학리스크지수(p): 131.4('25.12월) → 167.8('26.1월) → 121.6(2월) → 297.3(3월)
- 물가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진은 고용 및 소비 성장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전망

<그림 1>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 IMF

<그림 2> 미국 실효관세율



자료 : Refinitiv

□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한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기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은 빠른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

- 주요국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부양 목적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릴 전망
  - 미국은 2025년 통과된 대규모 감세안<sup>6)</sup>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한편, 유로존·일본·중국 등도 경기부양 목적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sup>7)</sup>를 유지할 전망
  - 미국이 호혜적 군사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군사비 증가 흐름<sup>8)</sup>이 예상된다는 점도 각국의 재정 확대 기조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6) OBBBA Act(One Big Beautiful Bill Act, '25.7.4일): 대규모 감세와 정부지출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7)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책대정확 추진, 일본은 기존의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재정정책의 기본 방침을 성장 우선으로 전환, 중국은 2026년 재정적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25년과 동일한 수준(GDP 대비 4%)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8) 미국, 캐나다, 유럽 30개국을 포함하는 NATO는 국방비 규모를 단계적으로 GDP의 5%까지 확대 결정



## 2. 국가별 전망

### (1) 미국

□ 미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 및 대외갈등 등에 의한 소비둔화, 특정 분야로의 투자 쏠림 등의 문제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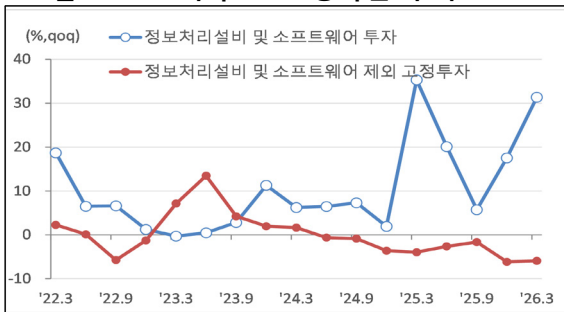
○ 미국 경제는 2025년 1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성장하였으나 대외갈등과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성장률 세부항목과 물가지표를 통해 노출

- 개인소비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며 2개 분기 연속 성장률 하락
  - 개인소비(% , qoq): 0.6('25.1Q) → 2.5(2Q) → 3.5(3Q) → 1.9(4Q) → 1.6('26.1Q)
- 순수출 적자 규모는 관세 영향으로 감소하다 최근 2개 분기 간 증가세로 전환
  - 순수출(십억달러): Δ1,380('25.1Q) → Δ1,058(2Q) → Δ955(3Q) → Δ968(4Q) → Δ1,067('26.1Q)
- 정부지출은 정부 섀다운('25.10월~11월)으로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증가
  - 정부지출(% , qoq): Δ1.0('25.1Q) → Δ0.1(2Q) → 2.2(3Q) → Δ5.6(4Q) → 4.4('26.1Q)
- 고정투자는 IT산업 호황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
  - 민간고정투자(% , qoq): 7.1('25.1Q) → 4.4(2Q) → 0.8(3Q) → 1.5(4Q) → 6.2('26.1Q)
  - 정보처리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 qoq)
    - : 35.3('25.1Q) → 20.1(2Q) → 5.7(3Q) → 17.5(4Q) → 31.4('26.1Q)

○ 실업률은 4%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선을 상회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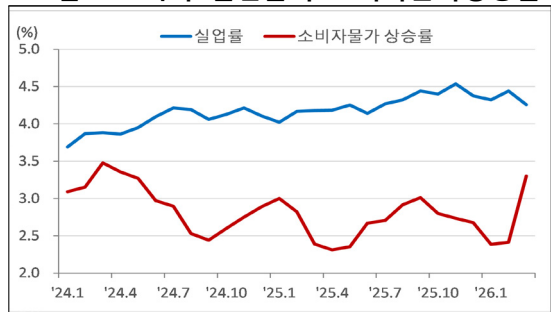
- 美 연준은 4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향후 방향에 대한 이견 발생<sup>10)</sup>

<그림 3> 미국 GDP 항목별 추이



자료 : Refinitiv

<그림 4> 미국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Refinitiv

10) 12명 중 3명은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를 성명서에서 삭제하기를 요구

**□ 對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압박과 전력수요 급증 등의 영향으로 연준의 물가목표치 도달은 쉽지 않을 전망**

- 확장적 대외정책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군사비 지출 증가로 인한 통화 공급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 존재
  - 對 이란 전쟁 이후에도 중국과의 마찰에 따른 희토류 가격 상승 가능성 등 원자재가격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는 상황
  - 또한 군사비지출 증가, 감세안(OBBBA법) 집행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sup>11)</sup> 된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부담 요인
- AI 산업 발전은 전력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며 물가에 변수<sup>12)</sup>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20년~'25년) 44% 이상 상승<sup>13)</sup>하였으며, 전력 인프라 노후화<sup>14)</sup>, AI 向 전력수요 급증은 물가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고금리로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이 부진해질 경우 주택 가격 및 주거 임대료 상승률이 하락이 물가상승률 급등을 제한하며 연준의 하반기 정책 결정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

**<표 2> 미국 GDP 및 주요 항목별 증가율** (단위 :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Q1
G D P	6.2	2.5	2.9	2.8	2.1	2.0
개 인 소 비 지 출	8.8	3.0	2.6	3.0	2.6	1.6
내 구 재 소 비	16.4	△2.0	3.8	3.9	3.6	0.0
민 간 고 정 투 자	7.3	2.5	3.4	3.0	2.7	6.2
정 부 소 비, 투 자	△0.1	△1.2	3.5	3.8	1.1	0.1
수 출	6.5	7.6	2.8	3.6	1.6	12.9
수 입	14.6	8.5	△0.9	5.6	2.7	21.4

주 : 2025년 1분기는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 : 미국 상무부

11) 美 의회예산국은 2026년 재정적자/GDP 비율을 기존 5.5%('25.1월)에서 5.8%('26.2월)로 상향  
 12) 미국 소비자물가 중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나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된 순수 전력 공급 서비스 비용임  
 13)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26.3.18일)  
 14) 미국 송전선의 약 31%, 배전망의 약 46%가 유효수명을 초과(Bank of America)

**□ 2026년 미국 경제는 2%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부각될 전망**

- 2026년 경제성장률은 재정지출 및 민간투자 확대에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확장적 대외정책에 따른 군사비 지출 증가 및 감세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국방비지출(% , qoq):  $\Delta 1.8$ (25.1Q)  $\rightarrow 0.2$ (2Q)  $\rightarrow 1.4$ (3Q)  $\rightarrow \Delta 2.8$ (4Q)  $\rightarrow 0.6$ (26.1Q)
  - AI 관련 투자는 하반기에도 미국의 민간투자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부문<sup>15)</sup>으로의 일부 투자 확산 가능성도 기대 가능
- 다만 특정 분야(AI)로의 투자 쏠림과 그에 따른 고용 둔화로 연말로 갈수록 성장률 둔화 우려가 부각될 전망
  - 장기간 부진했던 미국의 제조업생산은 다소 개선됐으나,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투자 및 생산량 증가가 고용 및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조업생산(% , yoy, 3MA):  $\Delta 0.9$ (24.9월)  $\rightarrow 0.3$ (25.6월)  $\rightarrow 1.3$ (26.3월)
    - 제조업 부문 고용(천명, 연간): 698(22년)  $\rightarrow 203$ (23년)  $\rightarrow \Delta 19$ (24년)  $\rightarrow \Delta 135$ (25년)
  - 연말로 갈수록 고물가와 고용 위축에 따른 소비 둔화가 지표상에서 확인되며 2027년 이후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전망
- 하반기 美 연준은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 고용 및 성장률 둔화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강화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상존

**<표 3>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 분	IMF	OECD	World Bank	Fed
2026	2.3	2.0	2.2	2.4
2027	2.1	1.7	1.9	2.3
전망시기	2026.4	2026.3	2026.1	2026.3

자료 : 각 기관 전망보고서

15) 전력인프라, 통신인프라, 로봇 산업 등이 AI 산업 발전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꼽힘

## (2) 중국

□ 중국 경제는 정부 주도 투자 확대와 수출 호조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나, 내수 부진과 수출 의존도 확대에 따른 대내외 경제불균형은 심화

- 중국 경제는 첨단기술을 통한 생산력 제고 정책으로 생산,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 시현
  - 첨단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 활황이 산업생산 확장세 견인
    - 첨단제조업 부가가치(% , ytd) : 9.5('25.2Q) → 9.6(3Q) → 9.4(4Q) → 12.5('26.1Q)
    - 산업로봇 생산량(% , ytd) : 35.6('25.2Q) → 29.8(3Q) → 28.0(4Q) → 33.2('26.1Q)
  - 고정자산투자는 장비 구매, 인프라 투자 확대로 '26년 1분기에 증가세로 전환
    - 장비구매(% , ytd) : 19('25.1Q) → 17.3(2Q) → 14(3Q) → 11.8(4Q) → 13.9('26.1Q)
    - 인프라(% , ytd) : 5.8('25.1Q) → 4.6(2Q) → 1.1(3Q) → △2.2(4Q) → 8.9('26.1Q)
  - 대미 수출 감소분을 EU,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로 상쇄하며 수출 호조 지속
    - '26.1Q 대미 수출은 △16.3%, 아세안, EU, 아프리카는 20.5%, 21.1%, 32.1%
- 내수 부진과 산업정책에 따른 공급과잉이 저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균형 심화
  - 서비스 소비의 L자형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민간소비 경색 국면 지속
    - 서비스 소매판매(% , yoy) : 20('23년) → 6.2('24년) → 5.5('25년) → 5.5('26.1Q)
  - 공급과잉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수출가격에 반영, 무역상대국 불만 점증
    - 수출가격지수(% , 연평균) : 12.4('23년) → △2.1('23년) → △5.5('24년) → △2.8('25년)

<표 4> 중국 GDP 및 주요 항목별 증가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Q1
실질 GDP	3.1	5.4	5.0	5.0	5.0
산업생산	3.6	4.6	5.8	5.9	6.1
소매 판매	△0.2	7.2	3.5	3.7	2.4
고정 자산 투자	5.1	3.0	3.2	△3.8	1.7
수출	7.0	△4.6	5.9	5.5	14.7
수입	1.1	△5.5	1.1	0.0	22.7
소비자물가	2.0	0.2	0.2	0.0	0.9
생산자물가	4.1	△3.0	△2.2	△2.6	△0.6

주 : 2026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은 실질 부가가치 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CEIC

**□ 2026년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에 따른 대외 교역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전망**

- 고용과 소득 정체,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소비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생산 증가가 고용과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지속
    - 도시조사실업률(%) : 5.1('25.12월) → 5.2('26.1월) → 5.3(2월) → 5.4(3월)
    - 가치분소득-산업생산(%p)<sup>16)</sup> : 1.5('23년) → △0.7('24년) → △0.9('25년) → △2.1('26.1Q)
  - 중동 사태로 수출 환경은 악화, 원자재 수입 가격은 상승하여 무역수지 감소
    - 무역수지(억달러, 월평균) : 828('24년) → 995('25년) → 1,226('26.1월) → 910(2월7) → 511(3월)
  - 중국 정부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5%에서 4.5~5%로 하향 조정
    -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은 4.5%를 하회하는 성장률 전망치 제시
- 중국 정부는 AI, 로봇 등의 첨단산업 발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할 전망
  - 15차 5개년('26~'30년) 계획<sup>18)</sup>에 따르면, AI 산업은 첨단산업 중 하나에서 전체 산업과 공공서비스, 행정을 아우르는 범용 인프라 및 안보의 주축으로 격상
  - 2026년 소비 보조금을 전년 대비 500억위안 축소하는 대신, 기업과 소비자의 이자비용 보전 및 신용보장을 위한 1,000억위안 기금을 조성해 내수 지원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 재개, 대내적으로는 은행권 수익성 저하와 민간 신용 수요 위축에 따른 통화정책 제약이 주요 리스크 요인
  - 2025년 10월 미·중 무역합의로 '관세 휴전'이 지속 중이나 최근 미국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재개로 양국간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 상존
  - 은행권 순이자마진 축소, 가계와 기업 심리 경색은 금리인하 폭과 효과 제한
    - 상업은행 순이자마진(%) : 1.91('22년) → 1.69('23년) → 1.52('24년) → 1.42('25년)

**<표 5> 주요 기관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 분	IMF	OECD	World Bank	ADB
2026	4.4	4.4	4.2	4.6
2027	4.0	4.3	4.3	4.5
전망시기	2026.4	2026.3	2026.4	2026.4

자료 : 각 기관 전망보고서

16) 가치분소득은 실질 증가율 기준, 산업생산은 실질 및 부가가치 증가율 기준

17) 춘절 연휴로 조업일수 감소

18) 계획(規劃)은 계획(計劃)보다 시간이 좀 더 길고 비교적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의미

### (3) 유로존

□ 유로존 경제는 미국·이란 전쟁이 통화정책과 서비스 부문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성장 둔화

- 유로존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ECB는 2026년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 우려와 경기 하강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2025년 6월 이후 기준금리 2.15%로 유지
    - 기준금리(%): 2.90('25.1월) → 2.65(3월) → 2.40(4월) → 2.15(6월) → 2.15('26.4월)
  - 고금리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생산활동 악화, 소비심리 둔화 등이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제조업생산(% , yoy): 1.5('25.10월) → 2.5(12월) → △1.6('26.1월) → △0.8(2월)
    - 소비심리지수(p): △13.3('25.9월) → △14.2(12월) → △16.5('26.3월) → △20.6(4월)
  - 특히 독일 경제 부진 장기화는 유로존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
    - 독일 성장률(%): 1.4('22년) → △0.3('23년) → △0.2('24년) → △0.1('25년)
- 관광산업 호조가 2025년 경제성장률 반등<sup>19)</sup>을 이끌어냈으나 전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관광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 중동 및 러시아 근접지역(터키, 그리스 등)에 대한 안전문제 부각 등이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전망

〈표 6〉 유로존 GDP 및 주요 항목별 증가율 (단위 :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Q1
G D P	3.7	0.5	0.9	1.5	0.1
민 간 소 비	5.3	1.1	1.3	1.5	-
정 부 지 출	1.3	2.0	2.3	1.6	-
민 간 투 자	2.2	2.7	△2.6	3.1	-
수 출	7.5	△1.0	0.5	2.2	-
수 입	8.5	△1.8	△0.2	3.7	-
소 비 자 물 가	8.4	5.5	2.4	2.1	2.1

주 : 2026년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자료 : EUROSTAT, ECB

19) 2025년 EU 관광산업 규모는 GDP의 10.5%에 달하는 약 1.9조 유로이며 약 2,600만명을 고용해 전체 일자리의 12% 가량을 차지(세계여행관광협회)

- 2026년 유로존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우려에 따른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1% 초반 성장에 그칠 전망
  - 미국과의 군사적 결속력 약화에 따른 군사비 지출 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등이 성장률 증가 요인
    - 독일 정부는 2025년 3월에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sup>20)</sup>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에도 공격적인 재정정책 목표<sup>21)</sup> 설정
    - NATO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sup>22)</sup>까지 증액하기로 결정<sup>23)</sup>
  - 러시아에 이어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sup>24)</sup>이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
    - EU는 에너지 비용 문제 해결 및 화석연료 의존 감축을 위한 행동 계획<sup>25)</sup> 발표
  - ECB의 긴축적 통화정책 방침으로 은행권의 대출 기준이 높아지며 부동산 및 제조업 침체 장기화와 소비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로 이어질 전망
    - 다만 하반기 중동 문제 완화시 美 연준에 이어 통화정책 전환이 예상되며, 이 경우 2027년 성장률 반등 기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표 7〉 주요 기관별 유로존 및 주요 회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분	년도	IMF	OECD	World Bank	ECB
유 로 존	2026	1.1	0.8	0.9	0.9
	2027	1.2	1.2	1.2	1.3
독 일	2026	0.8	0.8	-	-
	2027	1.2	1.5	-	-
프 랑 스	2026	0.9	0.8	-	-
	2027	0.9	1.0	-	-
이탈리아	2026	0.5	0.4	-	-
	2027	0.5	0.6	-	-
전망시기		2026.4	2026.3	2026.1	2026.3

자료 : 각 기관 전망보고서

20) 인프라 투자기금(5천억 유로) 조성, 주정부의 차입 상한 확대 등

21) 2025년 2.5%(기존 목표 3.2%)였던 재정적자/GDP 비율을 2026년에는 3.9%까지 확대 계획

22) 핵심 방위 수요 충족에 3.5%,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1.5%(\*25.6.26일)

23) 2025년 기준 NATO회원국 중 국방비/GDP 비율이 3%를 상회한 회원국은 미국 포함 8개국에 불과(NATO 회원국은 총 32개이며 이중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30개국은 유럽)

24) 2024년 기준 유로존 에너지 중 수입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

25) 국내산 청정에너지 확대, 청정에너지 투자 증대, EU 전력망 패키지 등을 골자로 함(\*26.4.22일)

### (4) 일본

#### □ 일본 경제는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상승했으나 대내외 부문 간 편차 심화 확인

- 수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수입은 직전 2개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순수출 확대
  - 운송설비 등 주요 수출품목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호조를 견인
    - 수출(% , qoq):  $\Delta 2.2('25.1Q) \rightarrow 6.7(2Q) \rightarrow \Delta 6.2(3Q) \rightarrow 0.7(4Q) \rightarrow 7.1('26.1Q)$
    - 수입(% , qoq):  $9.2('25.1Q) \rightarrow 4.4(2Q) \rightarrow \Delta 0.7(3Q) \rightarrow \Delta 0.1(4Q) \rightarrow 1.9('26.1Q)$
    - 순수출(십억엔):  $529('25.1Q) \rightarrow 594(2Q) \rightarrow 441(3Q) \rightarrow 460(4Q) \rightarrow 596('26.1Q)$
- 고정투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
  - 고정투자(% , qoq):  $1.0('25.1Q) \rightarrow 3.6(2Q) \rightarrow \Delta 5.8(3Q) \rightarrow 6.6(4Q) \rightarrow 2.1('26.1Q)$
- 한편, 가계소비와 정부지출 등 내수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가계소비(% , qoq):  $2.7('25.1Q) \rightarrow 0.6(2Q) \rightarrow 2.1(3Q) \rightarrow 0.2(4Q) \rightarrow 1.1('26.1Q)$
  - 정부지출(% , qoq):  $\Delta 0.8('25.1Q) \rightarrow 2.7(2Q) \rightarrow 0.3(3Q) \rightarrow 1.5(4Q) \rightarrow 0.4('26.1Q)$

#### □ 일본은행은 2026년 4월 기준금리를 동결(0.75%)하였으나 하반기 인상 예고

- 중동 發 공급충격 장기화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 재확인

〈표 8〉 일본 GDP 및 주요 항목별 증가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단위 : %)
					2026 Q1
G D P	1.3	0.7	$\Delta 0.2$	1.2	2.1
민 간 소 비	2.3	0.1	$\Delta 0.6$	1.5	1.1
주 택 투 자	0.4	2.1	$\Delta 1.0$	3.0	2.1
설 비 투 자	4.2	1.7	$\Delta 1.0$	3.0	1.1
정 부 지 출	1.6	$\Delta 0.2$	1.6	1.0	0.4
수 출	5.4	3.1	0.9	2.9	7.1
수 입	8.0	$\Delta 0.5$	0.9	4.0	1.9

주 : 2026년 1분기는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 2026년 일본 경제는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며 전년보다 낮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큰 폭의 명목임금 상승이 예상됨에도 중동 發 인플레이션으로 실제 소비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 춘투(春闘) 결과 2026년 명목임금은 전년대비 5.26% 상승할 것으로 집계돼 3년 연속 5%(연간 기준)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 명목임금상승률(% , yoy): 1.8('25.8월) → 2.3(12월) → 2.9('26.1월) → 4.2(2월)
  - 그러나 명목임금 상승의 나선효과<sup>26)</sup>, 중동산 에너지가격 상승<sup>27)</sup> 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소비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
    - 실질임금상승률(% , yoy): △1.2('25.8월) → △0.1(12월) → 1.1('26.1월) → 2.8(2월)
-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순수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특히 일본 수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sup>28)</sup> 등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
- 다만 연말로 갈수록 지정학적 불안 완화와 경기둔화에 따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정부의 경기부양적 재정정책<sup>29)</sup>으로 경기반등 기대감이 부각될 전망이다

〈표 9〉 주요 기관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 분	IMF	OECD	World Bank	BOJ <sup>주)</sup>
2026	0.7	0.9	0.8	0.5
2027	0.6	0.9	0.8	0.7
전망시기	2026.4	2026.3	2026.1	2026.4

주 : BOJ의 전망치는 일본정부의 회계연도(당해연도 4월~익년도 3월) 기준  
 자료 : 각 기관 전망 보고서

26) 임금상승이 수요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  
 27) 일본의 원유 및 천연가스가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며('24년) 원유의 약 97%, 천연가스의 100%를 수입에 의존  
 28) 일본 수출액 중 자동차 등 운송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 화학제품은 10.7%('25년)  
 29) 現 일본 내각은 재정건전성을 우선한 이전 내각들과 달리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원칙 수립

### (5) 아시아 신흥국

□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美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아세안5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 민간소비 및 수출 호조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 베트남은 확장적 경기부양책, FDI 증가세 지속, 수출 증대, 민간소비 호조, 관광업 호조 등에 힘입어 2025년 8.0% 성장하며 아시아 신흥국 경제를 견인
    - FDI(억달러): 366.1('23년) → 382.3('24년) → 384.2('25년) → 60.3('26.1~2월)
    - 수출(% , yoy): 10.8('25.1Q) → 19.9(2Q) → 18.2(3Q) → 19.1(4Q) → 19.1('26.1Q)
    - 소매판매(% , yoy): 9.9('25.3월) → 8.3(6월) → 11.3(9월) → 9.8(12월) → 12.1('26.3월)
  -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양호한 민간소비, 투자 확대 등으로 2025년 성장률은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인 5.1% 기록
    - 민간소비(% , yoy): 5.0('24.4Q) → 5.0('25.1Q) → 5.0(2Q) → 4.9(3Q) → 5.1(4Q)
    - 총고정자본형성(% , yoy): 5.0('24.4Q) → 2.1('25.1Q) → 7.0(2Q) → 5.0(3Q) → 6.1(4Q)
    - 수출(% , yoy): 12.1('24.4Q) → 6.9('25.1Q) → 9.6(2Q) → 9.8(3Q) → 2.2(4Q)
- 인도는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소득세 및 상품서비스세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2025년에는 2024년(7.1%)보다 상승한 7.6% 성장
  - 총고정자본형성(% , yoy): 6.2('25.1Q) → 4.9(2Q) → 8.4(3Q) → 7.8(4Q)
  - 민간소비(% , yoy): 5.6('25.1Q) → 9.2(2Q) → 8.0(3Q) → 8.7(4Q)
  - 수출(% , yoy): △4.3('25.1Q) → 2.1(2Q) → 6.9(3Q) → 2.1(4Q)

<표 10>

주요 신흥국 GDP 증가율

(단위 : %)

구 분	아시아 신흥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2024	5.4	7.1	7.0	5.7	5.0	5.1
2025	5.5	7.6	8.0	4.4	5.1	5.2	2.4
2026.1Q	-	-	7.8	2.8	5.6	5.3	2.8

주 : 2026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자료 : IMF, Bloomberg, 각국 통계청 및 중앙은행

**□ 2026년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 여건 악화 등에 따른 성장 모멘텀 약화로 전년보다 낮은 4.9% 성장에 그칠 전망**

- 아세안5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美 관세정책 등 통상 여건 악화로 전년(5.5%)대비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증가, 인프라부문 공공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수혜 등으로 높은 성장세 지속 전망
  - 인도네시아는 수출 둔화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속, 민간소비 회복,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등으로 202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태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1%p 수준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은 소폭(0.1~0.5%p) 하락 전망
- 인도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 민간소비 호조 등으로 6%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한편, 아시아 신흥국의 국가 부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sup>30)</sup>되는 가운데 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상환 부담 확대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美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이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을 제약함에 따라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 기준금리(% , '26.4월): 인도 5.25, 인도네시아 4.75, 필리핀 4.25, 베트남 3.0

**<표 11> 주요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 분	아시아 신흥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2026	4.9	6.5	7.1	4.1	5.0	4.7	1.5
2027	4.8	6.5	6.7	5.8	5.1	4.3	2.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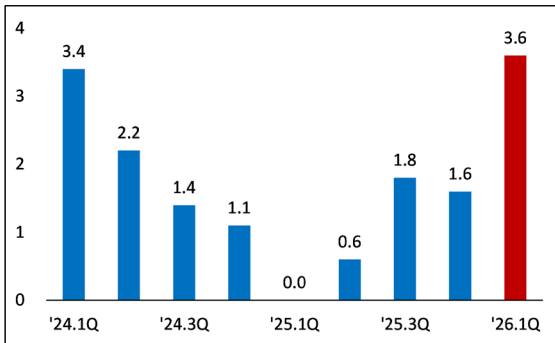
30) IMF 재정점검보고서('26.4월)의 신흥국 GDP 대비 정부 총부채 비율(%): 79.8('23년) → 84.3('24년) → 90.6('25년) → 96.1('26년) → 99.8('27년)

## Ⅱ. 국내경제 전망

### 1. 개괄

- 2026년 1분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3.6% 상승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양호한 증가세 속에 전년도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건설투자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 민간소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소비심리 회복 흐름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에 힘입어 3.6% 증가
    -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며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며 향후 상승 전환 기대
  - 수출은 AI 반도체 시장 확대 및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역대급 실적 달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7.8% 증가하며 국내경제 성장을 견인
    - 수출 증가에 따른 중간재 수입 확대 등으로 수입도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는 전년동기(195억달러)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738억달러 달성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2.1%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실업률<sup>31)</sup>은 3.5%로 전년동기(3.4%) 대비 소폭 상승

<그림 5> 분기별 경제성장률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표 12> 분기별 주요 지표

(단위 : %, 억달러)

구 분	'25.1Q	'25.2Q	'25.3Q	'25.4Q	'26.1Q
민간소비	0.6	0.9	1.9	1.9	2.6
설비투자	5.8	3.4	1.0	△1.7	3.6
건설투자	△13.3	△11.4	△7.5	△7.0	△1.4
수출(통관)	△2.3	2.1	6.5	8.4	37.8
수입(통관)	△1.3	△1.7	1.6	1.4	10.9
경상수지	195	284	360	392	738

주 : 전년동기대비(경상수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31)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되어 1분기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하락하여 3분기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후 4분기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반복

- 2026년 국내경제는 미국-이란 전쟁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역대급 수출 실적에 힘입어 전년(1.0%)보다 상승한 2.5% 성장 전망
  - 민간소비 개선 흐름 및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흐름 예상
    - 건설투자는 전년도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 흐름을 감안할 때 부진이 점차 완화되며 상승 전환할 전망
  - 수출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며 국내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2.6% 수준으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전년(2.8%)보다 소폭 상승한 2.9%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sup>32)</sup>,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른 주가 상승<sup>33)</sup> 등 경제 전반의 여건은 양호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도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
    - 한편, 높은 유가 수준과 인플레이션 우려,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정책 추진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

<표 13>

202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억달러)

구 분			2024	2025	2026
G	D	P	2.0	1.0	2.5
민 간 소 비			1.1	1.3	1.8
설 비 투 자			1.7	2.0	2.6
건 설 투 자			△3.3	△9.8	0.7
수 출			8.1	3.8	27.3
수 입			△1.7	0.0	13.6
경 상 수 지			1,000	1,231	2,300
소 비 자 물 가			2.3	2.1	2.6
실 업 률			2.8	2.8	2.9

주 : 1) 경상수지와 실업률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증가율  
 2) 수출 및 수입은 통관 기준

32)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57.2조원으로 전년동기(6.7조원) 대비 755% 급증,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7.4조원) 대비 405% 증가한 37.6조원

33)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5.8일 현재 2025년말 대비 77.9% 상승(4,214.17(2025.12.30) → 7,498.00(202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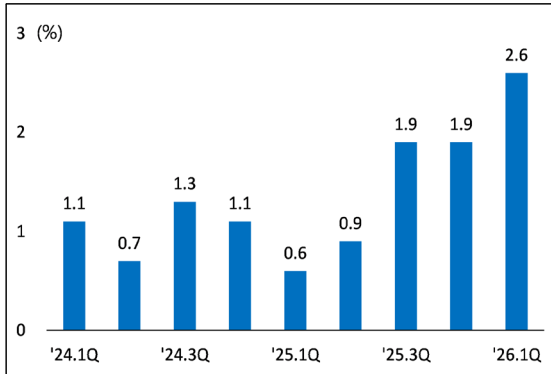
## 2. 부문별 전망

### (1) 민간소비

□ 2026년 민간소비는 1분기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전쟁 영향으로 3월 이후 잠시 위축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 1.8%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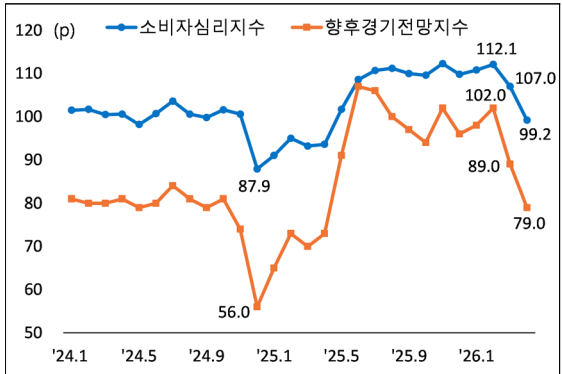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민간소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소비심리 회복 흐름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며 2023년 1분기(5.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6년 2월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3월 이후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2024년 12월 계엄 사태보다는 충격이 덜한 모습

〈그림 6〉 민간소비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한국은행

○ 2026년 1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업생산은 4.0% 증가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  
 - 소매판매 중 내구재는 승용차 소비 증가세 지속(9.6%)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 준내구재는 상승 전환하였으며 비내구재는 2분기 연속 상승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1.8%) 등 일부 업종이 하락하였으나, 금융·보험(8.6%), 보건·사회복지(5.7%), 도·소매(4.7%) 등 대부분 업종은 높은 증가율 기록  
 · 금융·보험(% , yoy): 1.6('25.1Q) → 3.4(2Q) → 3.1(3Q) → 3.4(4Q) → 8.6('26.1Q)  
 · 보건·사회복지(% , yoy): 4.1('25.1Q) → 5.9(2Q) → 5.1(3Q) → 6.5(4Q) → 5.7('26.1Q)  
 · 도·소매(% , yoy): 1.0('25.1Q) → 1.1(2Q) → 6.2(3Q) → 3.4(4Q) → 4.7('26.1Q)

<표 14>

소매판매 및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단위 : %)

구 분	'25.1Q	'25.2Q	'25.3Q	'25.4Q	'26.1Q
소 매 판 매	△0.8	△0.1	1.6	0.9	3.3
내 구 재	1.9	4.6	7.3	1.2	6.1
승 용 차	10.0	15.0	16.3	2.8	9.6
준 내 구 재	△3.6	△5.0	0.5	△0.2	4.7
비 내 구 재	△1.0	△0.4	△0.7	1.0	1.6
서 비 스 업 생 산	0.9	1.6	3.2	2.3	4.0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 민간소비는 3월 이후 잠시 위축된 소비심리가 하반기부터 전쟁 영향 약화와 정부의 추경 및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점차 회복되며 완만한 개선세 예상
  -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을 포함한 26.2조원 규모 추경(안)<sup>34)</sup> 의결(4.10일)로 민간소비 개선 및 성장률 제고 기대<sup>35)</sup>
  - 또한,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25.12월 → '26.6월), 인구 감소 지역 반값 여행<sup>36)</sup> 지원사업,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sup>37)</sup> 등 경기 부양책 적극 시행
-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고유가 지속 예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은 민간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계신용 잔액(조원): 1,950('25.2Q) → 1,914(3Q) → 1,965(4Q) → 1,979('26.1Q)
  - 유가 급등으로 3월부터 높아진 수입물가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후반까지 높아졌다가 서서히 하락할 전망
    - 브랜드유 가격(달러/배럴): 60.75('26.1.2일) → 109.77(4.6일) → 100.80(5.8일)
    - 수입물가(% , yoy): 0.5('25.12월) → △0.9('26.1월) → 1.6(2월) → 20.4(3월) → 20.2(4월)

34)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4조원, 민생 안정 2.8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등이며, 추경 후 확정된 20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703.3조원) 대비 7.1% 증가

35) 신현송 한은 총재는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4.13일)

36) 2026년 4~6월 중 전국 인구 감소 지역 16곳 여행 시 사전 신청을 하면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정책으로,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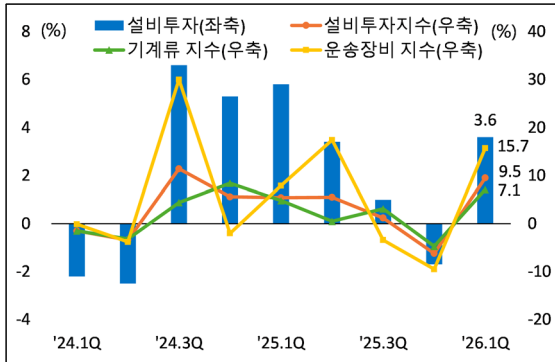
37)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4.28일 발표한 정책으로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입 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최대 5%p), 인구감소지역 대상 숙박 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

## (2) 투자

### □ 2026년 설비투자는 AI 등 반도체 분야 중심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심리도 서서히 회복되며 전년(2.0%)보다 상승한 2.6%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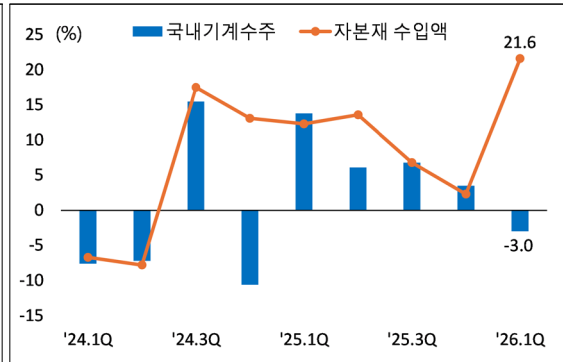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3.6% 증가, 설비투자재 공급을 보여주는 설비투자지수는 9.5% 상승
  - 설비투자지수 중 기계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 확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 2025년 하반기 하락세를 보인 운송장비는 2026년 1분기에 다시 반등
  -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 , yoy): 14.1('25.2Q) → 7.0(3Q) → △10.8(4Q) → 21.7('26.1Q)
- 설비투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 및 선행지표의 양호한 흐름 속에 기업심리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 확대가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재 수입액이 2024년 3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 중인 점도 설비투자의 증가 요인
  - Gartner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21.1('25년) → 63.9('26년E)
  - 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기업심리지수가 대폭 상승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산업 기업심리지수도 완만한 상승 흐름
  - 제조업 기업심리지수(p): 92.6('25.10월) → 94.7(12월) → 97.1('26.2월) → 99.1(4월)
  - 소산업 기업심리지수(p): 91.1('25.10월) → 94.2(12월) → 94.2('26.2월) → 94.9(4월)
-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후퇴, 고유가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설비투자 증가를 제약할 여지도 존재

〈그림 8〉 설비투자 및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 9〉 기계수주 및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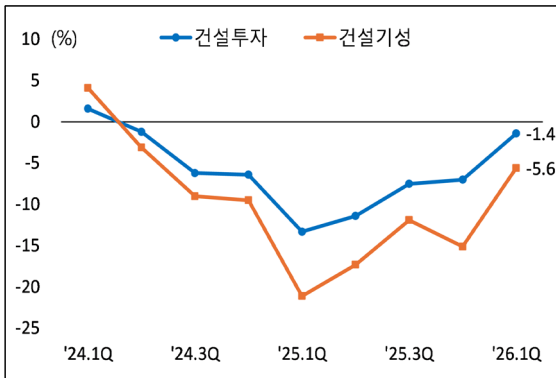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한국무역협회

□ 2026년 건설투자는 전년도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4년 2분기 이후의 수주 개선 영향으로 부진이 완화되며 0.7%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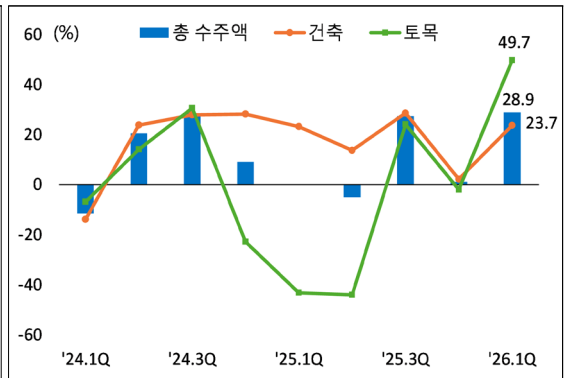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전년 동분기 큰 폭의 감소(△13.3%)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 폭은 축소되며 전년동기대비 1.4% 감소
  - 건설기성액은 정부 사업 확대 등에 따른 토목 부문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이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전년동기대비 5.6% 감소
    - 토목 부문(% , yoy): △14.2('25.2Q) → △8.6(3Q) → △14.6(4Q) → 2.6('26.1Q)
    - 건축 부문(% , yoy): △18.4('25.2Q) → △13.0(3Q) → △15.3(4Q) → △8.4('26.1Q)
- 건설투자는 하반기부터 수주 개선 영향으로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공사비 증가에 따른 착공 위축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하여 소폭의 증가에 그칠 전망
  - 2024년 2분기 이후 건설수주, 특히 건축 부문 수주 증가 흐름 지속의 효과,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 증가 등에 따라 건설투자 점진적 개선 예상
  - 2025년 11월 이후 미분양주택이 소폭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착공 면적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건설투자의 상방 요인
    - 미분양주택(만호): 68.8('25.11월) → 66.5(12월) → 66.6('26.1월) → 66.2(2월) → 65.3(3월)
    - 건축착공 면적(% , yoy): 4.4('25.11월) → 11.8(12월) → 16.7('26.1월) → 6.8(2월) → 7.4(3월)
  - 단, 건설용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착공 지연 가능성,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등은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건설용 중간재 가격(% , yoy): △0.2('25.2Q) → 0.1(3Q) → 1.6(4Q) → 2.7('26.1Q)

<그림 10>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 11> 건설수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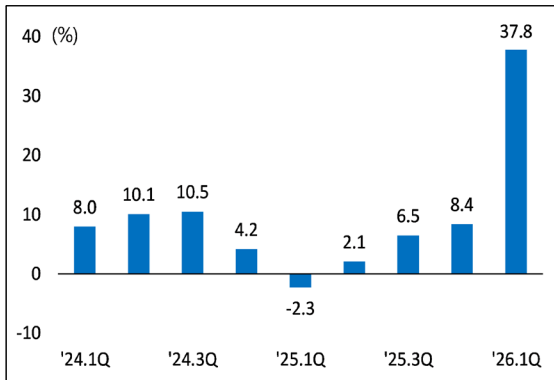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 (3) 수출입

□ 2026년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으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27.3%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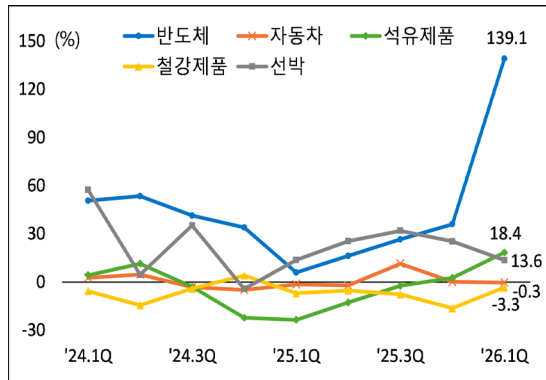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수출은 반도체 수출 확대에 힘입어 3월 866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월 수출 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37.8% 증가
  -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139.1%)한 가운데 석유제품과 선박 등도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철강제품 등은 소폭 감소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405('25.2Q) → 464(3Q) → 538(4Q) → 784('26.1Q) → 319(4월)
  - 지역별로는 역대급 반도체 수출 실적으로 최대 수출국인 중국(49.0%), 미국(35.7%)을 비롯해 아세안(34.8%), EU(12.7%)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 對中 수출(% , yoy): Δ2.5('25.2Q) → Δ1.9(3Q) → 3.7(4Q) → 49.0('26.1Q)
  - 對美 수출(% , yoy): Δ5.3('25.2Q) → Δ4.0(3Q) → Δ3.9(4Q) → 35.7('26.1Q)
- 수출은 높은 메모리 가격 지속에 따른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며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4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48.0% 증가한 859억달러를 기록하여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반도체 호황이 하반기까지 지속되며 수출 대폭 확대 전망
  -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되며 세계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

<그림 12> 수출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13>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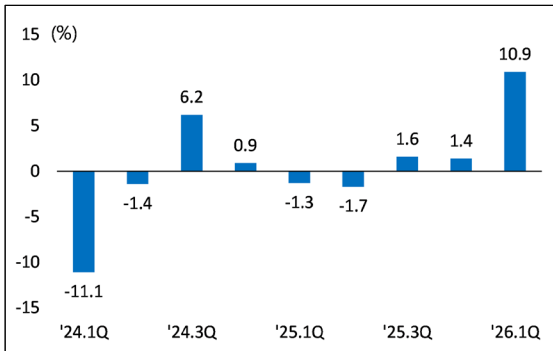
**□ 2026년 수입(통관 기준)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 등으로 13.6% 증가할 전망**

- 2026년 1분기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 증가, 소비 개선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
  - 자본재 수입액(% , yoy): 13.6('24.2Q) → 6.8(3Q) → 2.3(4Q) → 21.6('25.1Q)
  - 소비재 수입액(% , yoy): 1.7('24.2Q) → 7.4(3Q) → 1.6(4Q) → 9.7('25.1Q)
- 수입은 반도체 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 유가 상승에 따른 2분기 이후 원유 수입액 증가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3.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4월 수입은 반도체(53.2%), 반도체 장비(59.9%) 수입 증가 폭 확대와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13.1%) 수입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
    - 원유 수입액(억달러): 61.9('26.1월) → 54.5(2월) → 59.5(3월) → 70.3(4월)

**□ 2026년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규모 증가에 힘입어 전년(1,231억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300억달러 흑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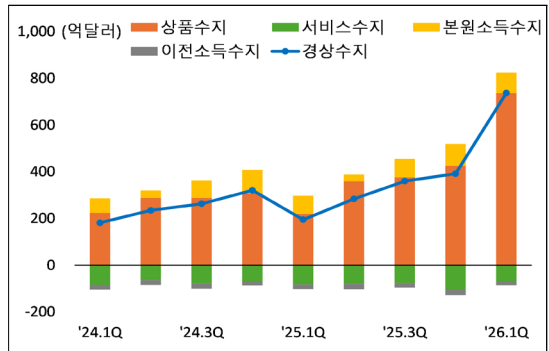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와 배당소득 중심의 본원소득수지 증가로 전년동기(195억달러)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738억달러 흑자 기록
  - 1분기 배당소득(억달러): 31.1('23년) → 27.3('24년) → 33.9('25년) → 46.9('26년)
-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황 지속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확대와 외국인 국내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로 흑자 대폭 증가 예상
  - 외국인 국내관광객(% , yoy): 15.3('25.2Q) → 18.5(3Q) → 14.7(4Q) → 22.6('26.1Q)

<그림 14> 수입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15>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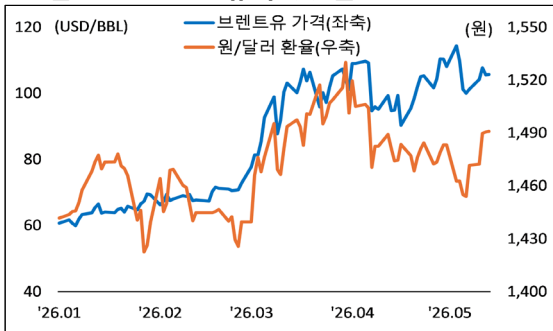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4) 물가

#### □ 2026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상방 압력으로 2.6%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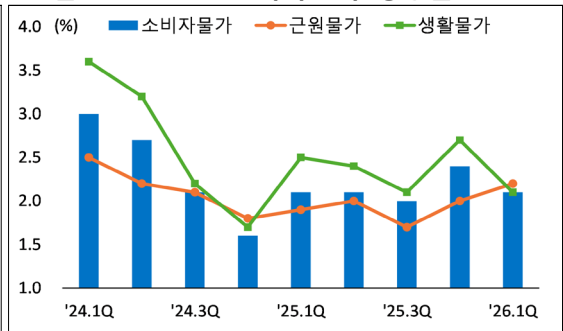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소비자물가는 근원물가(식료품, 에너지 제외)와 생활물가<sup>38)</sup> 상승률이 2% 초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식료품 가격도 안정화되며 전년동기대비 2.1% 상승
  - 식료품(% , yoy): 2.6('25.2Q) → 3.6(3Q) → 3.8(4Q) → 1.7('26.1Q) → 0.1(4월)
  - 다만,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및 고환율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평균 브렌트유 가격(달러/배럴): 64.7('26.1월) → 69.4(2월) → 99.6(3월) → 102.5(4월)
    - 수입물가(% , yoy): 0.5('25.12월) → △0.9('26.1월) → 1.6(2월) → 20.4(3월) → 20.2(4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4월 2.6%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 이후 2% 후반까지 상승한 후 4분기에 하락하여 전년(2.1%) 대비 높아진 2.6% 예상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4월 들어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업제품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 농축수산물(% , yoy): 1.1('25.2Q) → 2.9(3Q) → 4.2(4Q) → 1.2('26.1Q) → △0.5(4월)
    - 석유류(% , yoy): △1.3('25.2Q) → 0.0(3Q) → 5.6(4Q) → 2.5('26.1Q) → 21.9(4월)
    - 공업제품(% , yoy): 1.6('25.2Q) → 1.8(3Q) → 2.3(4Q) → 1.9('26.1Q) → 3.8(4월)
  - 향후 유가 움직임에 따라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가운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sup>39)</sup>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그림 16〉 유가 및 환율



자료 : 연합인포맥스

〈그림 17〉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38) 소비자물가 중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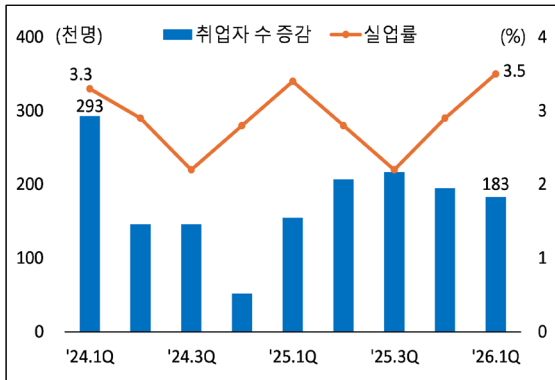
39)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물가안정을 위해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을 설정하여 석유류 가격 오름폭을 제약)를 시행

### (5) 고용

#### □ 2026년 실업률은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로 전년보다 0.1%p 상승한 2.9%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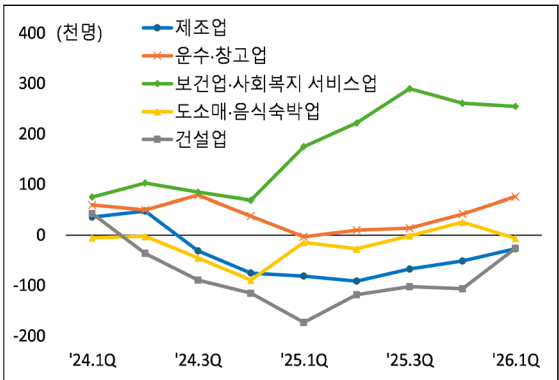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83천명 증가, 실업률은 3.5%를 기록
  -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동기(155천명)보다 확대되었으나,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도 확대(169천명('25.1Q) → 243천명('26.1Q))되며 고용률은 전년 수준 유지
  - 1분기 고용률(%): 61.2('23년) → 61.6('24년) → 61.8('25년) → 61.8('26년)
  -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업 등 증가, 제조업, 건설업 등은 감소, 지위별로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감소
  - 상용/임시/일용 취업자수 증감(만명, yoy): 231/78/△103('25.1Q) → 163/△49/32('26.1Q)
  -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 고용 부진,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
  - 15~29세 취업자 수 증감(만명, yoy): △175('25.3Q) → △151(4Q) → △156('26.1Q)
  - 1분기 실업률(%, yoy): 3.2('23년) → 3.3('24년) → 3.4('25년) → 3.5('26년)
- 실업률은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대비 소폭 축소되며 전년(2.8%)보다 0.1%p 상승한 2.9% 예상
  - 다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과 하반기 이후 건설업 부진 완화 전망에 따라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세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
  -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등 일자리 확충 정책도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를 제한

<그림 18>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그림 19> 주요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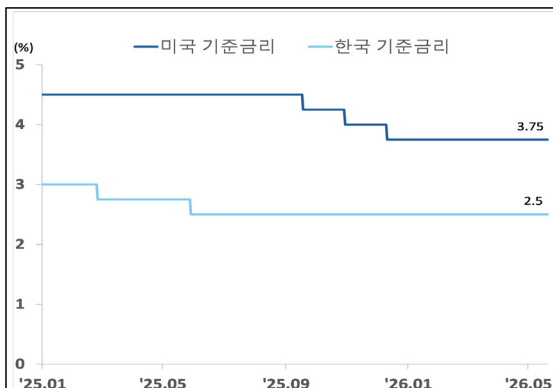
### Ⅲ. 금리·환율 전망

#### 1. 금리 전망

□ 2026년 5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초와 동일한 2.50% 수준 유지, 시장금리는 보험세를 지속한 후 3월부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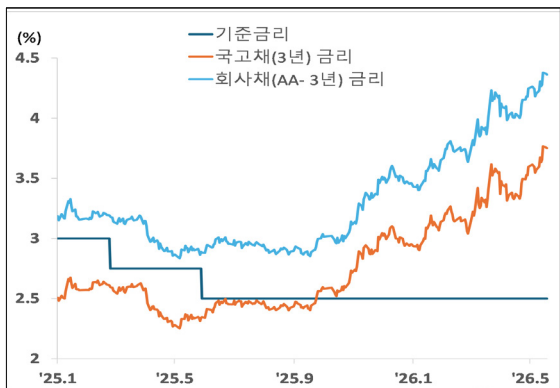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년 5월 25bp 인하 후 8연속 동결되며 2.50%를 유지
  - 가계부채와 환율의 오름세, 주택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금리인하가 지연되던 중 중동궤 공급충격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확대되며 금리인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이란 전쟁 개전 이후 주요국 통화당국 또한 원유 공급충격의 물가 상승 영향 및 지속성을 지켜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기준금리를 동결
-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연초 보험 흐름을 보였으나, 3월 이후 중동궤 공급충격 발생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며 상승 압력 확대
  - 국고채 금리(% , 3년, 월말): 2.95('25.12월) → 3.14('26.1월) → 3.04(2월) → 3.55(3월) → 3.60(4월)
  - 회사채 AA- 금리(% , 3년, 월말): 3.48('25.12월) → 3.66('26.1월) → 3.64(2월) → 4.17(3월) → 4.25(4월)
  - 고유가·고환율 환경 지속에 따른 물가 압력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코스피 강세에 따른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등이 시장금리 상승을 유도
  - 주식형 펀드잔액(조원, 월말): 246('26.1월) → 280(2월) → 261(3월) → 317(4월)

<그림 20>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FRB

<그림 21> 기준금리,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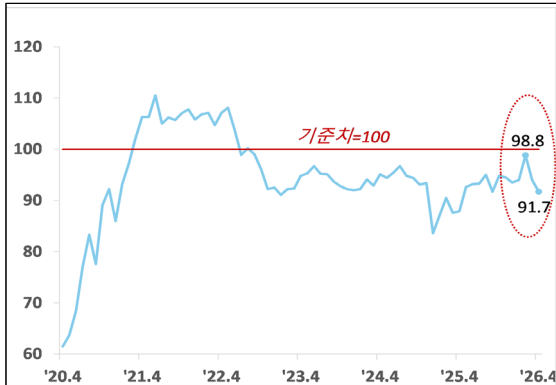


주 : 회사채금리는 민간 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인포맥스

**□ 2026년 기준금리는 중동 사태의 전개를 관망하며 연 1~2회 수준의 인상 전망, 시장금리도 기준금리의 인상 기대를 반영하며 상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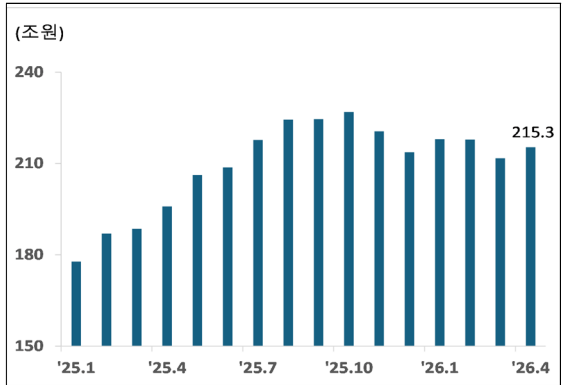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의 전개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며 2026년 중 연 1~2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
  - 1분기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으로의 편중, 경제심리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연내 인상 시기는 관망할 필요
    - 경제심리지수(P, 기준치=100): 94.0('26.1월) → 98.8(2월) → 94.0(3월) → 91.7(4월)
    - 5대은행 연체율 평균(%): 0.41('25.1Q) → 0.38(2Q) → 0.37(3Q) → 0.34(4Q) → 0.40('26.1Q)
  - 중동發 공급충격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및 인플레이션 고착화 여부, 하반기 예정된 美 관세의 파급효과 등이 통화정책 방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3년, %): 2.5('26.1월) → 2.5(2월) → 2.6(3월) → 2.6(4월)
- 2026년 시장금리는 중동發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한국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하반기 우량채 공급 부담 등으로 상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 중동發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형성된 가운데 2분기 이후 공적채권 발행 확대가 예상되며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단,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수요 확대와 채권형 펀드 자금의 안정적 유지로 채권 수요는 견조할 전망이며, 환율 안정에 따른 물가압력 완화 등도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채권형 펀드 잔액(조원, 월말): 218('26.1월) → 217.8(2월) → 211.7(2월) → 215.3(4월)

<그림 22> 우리나라 경제심리지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3> 채권형 펀드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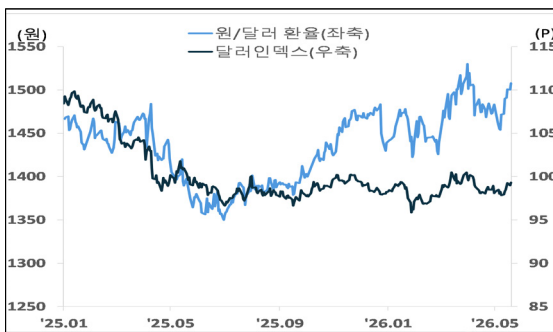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 2. 환율 전망

### □ 2026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의 발발 이후 한때 1,530원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1,400원대 후반 수준에서 점차 안정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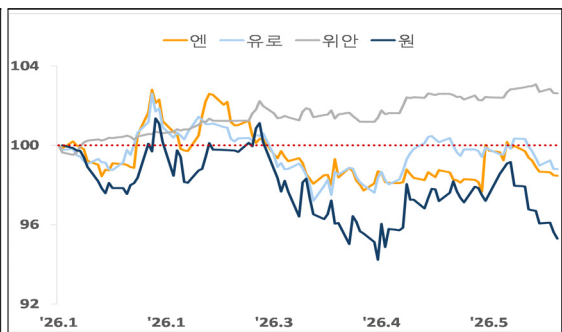
- 달러화는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통화당국의 긴축 움직임 등으로 제한적 강세 시현
  - 소비·투자, 고용 등 실물 부문의 견조한 흐름,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서의 지위 등도 달러 강세 지지, 달러인덱스는 3월 한때 100을 넘어서며 연초 대비 상승
  - 평균 달러인덱스(P): 98.0('26.1월) → 97.5(2월) → 99.5(3월) → 98.7(4월)
- 달러화 대비 위안화와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
  - 위안화는 중국 당국의 통화 강세 용인 기조, 견조한 수출 흐름 등으로 강세
  - 유로화는 물가상승 우려로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강세
  - 엔화는 중동發 공급충격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BOJ의 금리인상 지연 등으로 약세
-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때 장중 1,530원을 상회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양호한 경제지표와 달러 수급 개선으로 점차 안정화
  - 평균 원/달러 환율(원): 1,456('26.1월) → 1,449(2월) → 1,486(3월) → 1,487(4월)
  - 원화는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와 원유 수입 의존도에 따른 대외 민감성,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도세 등을 반영하여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의 약세 시현
  - 외국인 주식 순매수(조원): 0.6('26.1월) → △19.8(2월) → △35.6(3월) → 0.9(4월)
  - 다만, 4월 이후 높아진 성장 전망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론 대두,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완화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전환 등이 환율 안정에 기여

<그림 24>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자료 : 인포맥스

<그림 25> 통화별 달러화 대비 환율



자료 : 인포맥스

□ 2026년 하반기 달러화는 제한적 강세 지속 예상, 원/달러 환율은 달러 수급 개선 요인의 지속으로 1,400원대 초반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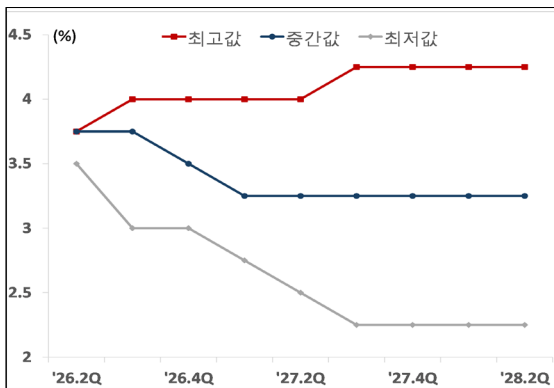
○ 2026년 달러화는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축소, AI 투자 사이클 지속으로 인한 미국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 전망

- 3월 PCE와 근원 PCE 물가가 각각 3.5%와 3.2% 상승, 4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3.6%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금리인하를 제약
- 4월 FOMC에서 세 명의 연준위원이 성명서 내 완화편향 문구 포함에 반대하는 등 연준 내 매파적 기조 강화, 금리선물시장 또한 연중 기준금리 동결 기대 반영
- 나스닥 지수는 AI 기업 호실적 및 투자 사이클 지속 기대를 반영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 다만, 중동정세 완화 기대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산, 주요 통화당국의 매파적 기조 지속 등은 달러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6년 원/달러 환율은 달러 수급 개선 요인의 지속에 힘입어 1,400원대 초반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美 관세 등 상방 리스크 또한 상존

-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 확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견조한 무역수지 등이 원/달러 환율의 하방 요인
- 무역수지(억달러): 122('25.12월) → 87('26.1월) → 154(2월) → 262(3월) → 238(4월)
- 단, 하반기 美 관세 재가동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중동리스크의 재확대와 美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은 환율 안정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26> 미국 기준금리(상단) 예상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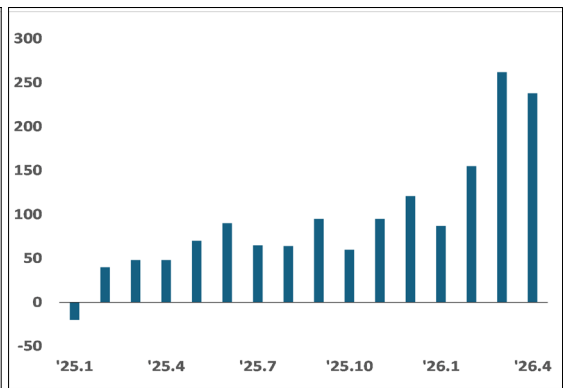


주 : '26.5.8일 기준

자료 : Bloomberg

<그림 27>

무역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